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0호 【루계 제23222호】 주체99(2010)년 9월 27일(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24일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 단장인 김형준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7일 협회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로씨야작가동맹의 인사들과 군중이 발행식에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위원장 쎄묘노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을 출판한것은 우리들모두의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업적을 로씨야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절세위인들의 로작 출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당면하여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품위있게 출판함으로써 그이의 위대성 선전과 로조친선강화발전에 적으나마 이바지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싸흐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동지애의 화신

국제사회계가 격찬

국제사회계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적동지애를 선군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더욱 승화시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열렬히 찬양하고있다.

민주꽁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혁명적동지애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인품을 지니신 김일성주석처럼 동지가 많고 벗이 많으신분을 력사는 알지 못한다.

오늘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주석의 동지애의 력사는 계속되고있다.

나미비아신문 《뉴 이어러》는 김정일령도자의 동지애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충성과 의리에서 가장 숭고하게 발현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 조선에서 세계의 관심속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강성대국건설 역시 주석의 생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한 대진군의 진두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신다고 전하였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는 블레쩐에서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동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가 곧 단결이며 동지애가 진실하고 뜨거울수록 일심단결이 더욱 순결하고 공고해진다고 간주하신다, 혁명적동지애를 일심단결의 기초로, 조선로동당의 정신력, 조선혁명의 추진력으로 규정하신 그이의 손길아래 조선사회는 사선을 함께 헤치고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는 신념의 동지, 열혈의 동지들의 집단으로,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고 그 어떤 분렬와해수법과 심리모략전으로도 허물수 없는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로 다져졌다고 격찬하였다.

쁠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는 블레쩐에서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과 동지애에 기초한 당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조선로동당안에서 다른 나라의 당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분파나 파쟁같은것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네팔신문 《인드레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취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과정은 그대로 동지애의 발현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여기시고 끊임없는 군부대시찰로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며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험한 곳도 다 찾아가시고 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요구되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풀어주신다.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김정일총비서의 숭고한 풍모는 조선에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도덕의 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동지를 위하여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여기신다. 그이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신다.

그이께서 얼마나 인정미넘치는분이신가 하는것은 조선에서 김정일령도자와 평범한 사람들사이에 스스럼없이 오고가는 편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령도자는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시기 전에 마음속사연도 다 아뢰이는 가장 친근한분, 온 나라 가정의 인자한 어버이이시다.

에빠도르 볼룬따드출판사는 블레쩐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을 따라 오랜 기간 혁명투쟁을 해온 로혁명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선배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후대들이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로혁명가들에 대한 그이의 높은 평가의 산증거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세심한 관심속에 조선에는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이 가장 좋은 곳에 자리잡게 되였으며 여러 단위가 렬사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히 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일성민족의 강의한 정신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앞당기자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로력적선물

인민학습당 준공식 진행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이 사리원시에 훌륭히 일떠섰다.

4 500여㎡의 건축면적에 건설된 학습당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있으며 목록검색으로부터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 등을 콤퓨터와 망체계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여있다.

당의 은정속에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이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섬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과학기술, 문화지식보급에 적극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였다.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원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준학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학습당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준공식에서는 박태덕책임비서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마련된 학습당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열심히 배움으로써 문화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학습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방면적인 실력가로 준비하며 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습당을 돌아보았다.

1호대형원추형파쇄장 완공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1호대형원추형파쇄장이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파쇄장이 건설됨으로써 많은 연유와 로력, 자재, 설비, 부속품들을 절약하면서도 박토처리능력은 4배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 2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대형원추형파쇄기설치를 비롯한 기술개건과 능력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는 강력한 기술력량을 뭇고 공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었다.

련합기업소 설계연구소와 전자공업성 설계연구소 연구사들은 집단적혁신으로 설계도면들을 완성하였으며 콤퓨터에 의한 원격조종체계를 1호대형원추형파쇄기운영에 도입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 13만 5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4 000여㎥의 콩크리트타입과 160여㎡의 블로크축조작업을 해제끼였다.

대보수분사업소와 무산광업건설사업소 건설2직장, 제판조립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공법을 받아들여 수백t의 무게를 가진 대형원추형파쇄기와 천정기중기를 조립설치하였으며 유압 및 윤활실과 배전반실, 조종실, 1 500m의 콘베아설치와 원동소건설을 립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1호대형원추형파쇄장을 철산봉중심구역에 훌륭히 건설하고 박토처리에 들어갔다.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파쇄장을 완공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충천한 기세로 철정광증산을 위한 혁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대상설비생산성과 확대

채취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여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채취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맹세를 안고 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상반년기간에 맡겨진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와 장산전기공장, 동림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안주뽐프공장과 신의주광산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자들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와 장산전기공장, 동림전기공장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나가는 밀뿌리가 될 굳은 결의를 안고 대상설비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상반년기간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드높이 중요대상공사장들에 필요한 뽐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면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동림광산기계공장의 생산자들은 제품의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면서 중요대상설비생산을 결속해나가고있다.

광차생산에서 놀라운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신의주광산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더 많은 광차를 보내주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전천착암기공장의 생산자들도 월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착암기를 보내주고있다.

백산해

가치있는 연구성과들 도입

의학과학원에서

뜻깊은 올해 의학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각지 제약공장, 고려약공장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개발한 수십종의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학자들이 의학의 한 부문씩 맡아 거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푼다면 우리 나라 의학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을것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의학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원가가 적게 들면서도 치료효과가 좋고 수요가 높은 의약품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마련하였다.

의학과학원에서는 이룩된 연구성과들을 지체없이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약학연구소, 종양연구소를 비롯한 의학과학원아래 각지 연구소일군들은 과학자들과 함께 도입단위로 선정된 제약공장, 고려약공장들에 나가 필요한 조건들을 빈틈없이 갖추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약학연구소의 일군들은 만경대, 강계, 사리원, 연산 등지의 고려약공장들에 나가 도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지의 일군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과학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일군들의 진심어린 방조에 고무된 각지 연구소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도입전투를 책임적으로 벌리였다. 은행잎동맥경화알약, 항암제인 탁솔주사약과 너삼항암주사약을 비롯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안고 현지에 달려나간 리희숙, 오수산, 라영호동무를 비롯한 의학과학원안의 과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면서 수십종의 의약품들을 현실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은 의학생물학연구소와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몇해전부터 두가지 진단시약과 애기콩젖가루를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당의 예방의학적방침 관철과 어린이건강관리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리일훈동무를 비롯한 종양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약개발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예방약생산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각 도인민병원들에 보내주고있다.

홍남과 라남, 정주와 봉산, 금야와 회령 등지의 제약, 고려약공장들에 달려나간 과학자들도 생산정상화를 위해 현지의 생산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오현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들 평양 도착

【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수도 평양은 끝없는 환희에 휩싸여있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2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역구내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 일군들이 대표자들을 맞이하였다.

대표자들은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여온 자랑을 안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참가하게 된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하여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대표자회를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는 뜻깊은 계기로 되게 할 굳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전체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을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앞당겨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 접견

【아바나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24일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김형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와 구두친서, 선물을 대표단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꾸바혁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받는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한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것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롤란도 알폰쏘 보르헤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상부장과 권승철 꾸바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한 불멸의 업적

국내당조직결성과 력사적인 두루봉회의 80돐에 즈음하여

두루봉이여, 력사의 증견자로 길이 빛나라!

세월은 멀리 흘러 이제는 아름드리나무들에도 수많은 년륜이 아로새겨지고 무수한 바위들에도 이끼가 두텁게 낀 두루봉,

돌이켜보면 이름없던 두루봉이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빛을 뿌리기 시작한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어느덧 80년세월이 흘렀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 9월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여 여러날에 걸쳐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되는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투쟁의 믿음직한 거점으로 꾸리기 위하여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그 나날의 로고를 력사의 두루봉은 오늘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벌써 그때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백두산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륙읍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전쟁을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꾸릴 계획을 품고있었다. 국내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 돌파구도 바로 여기에서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혁명이 승리의 항로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자면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축성된 전략적거점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혁명투쟁은 일정한 활동거점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 혁명은 그 개척기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전진하고있던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우기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전략적거점의 하나로 온성지구를 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밑에 온성일대가 혁명의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꾸려지기 시작한것은 1920년대말부터였다.

당시 이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에 의하여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지부들이 활동하고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할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이미 《ㅌ.ㄷ》를 결성하시여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출발점을 마련하시고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여 우리 당의 씨앗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 당조직도 내오고 카륜회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키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주체19(1930)년 9월 27일 몸소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온성지구에 나오시였다.

온성지구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 당조직을 내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한편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때로는 로동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장투쟁문제, 당창건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고 때로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될 혁명조직핵심성원들을 만나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당원이 되자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등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온성지구의 여러 산발을 타보기도 하시고 골짜기들도 둘러보시며 이 일대가 우리 혁명의 전략적거점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지대라는 확신을 굳히시고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그 성원들의 투쟁각오와 준비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것을 파악하시고 이 지구에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기초가 축성되였다는 결론을 내리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러한 확신과 결론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10월 1일 두루봉에서 당조직결성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국내당조직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그이께서는 먼저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로선을 전달하시고 그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것이라는것을 밝히신 다음 온성지구에 국내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시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하여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당조직성원으로 될 여러 혁명가들을 한사람한사람 추천하시고 그들의 결의를 다 들으신 다음 국내당조직의 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제의에 따라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된 국내당조직성원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 결의에 넘쳐있는 당조직성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한폭의 붉은기를 꺼내드시였다.

진한 붉은색으로 된 기폭에는 《조선혁명 만세!》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기발을 당조직책임자에게 수여하시면서 이 기발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상징하고있다고, 우리 당원들은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이 기발을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립선언문이나 취지서같은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국내당조직성원들은 몇마디의 맹세로 회의가 결속되는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무들이 방금 다진 맹세가 몇백페지의 선언문이나 취지서보다 훨씬 더 실속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소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날리는것이 당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문은 내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것이 당원들이니 동무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국심을 파시하라고 격려해주시였다.

온성지구에 당조직이 결성된것은 국내에서 당건설의 기초를 축성하는 돌파구로 되였으며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떠밀어주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그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루봉마루에 있는 소나무숲속에서 륙읍일대와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이것이 력사적인 두루봉회의이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느라면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입니다.

조선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 이것이 우리가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태도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력사적인 두루봉회의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립장과 태도를 뚜렷이 밝히신것은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끌어올리고 주체의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될수 있게 한 원천이였다.

그후 온성지구당조직의 활동에 의하여 륙읍일대에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과정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반일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그리하여 후날 온성일대는 왕청, 연길지구와 함께 항일전쟁의 가장 믿음직한 거점으로 전변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여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력사적인 두루봉회의를 소집하신것은 국내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항일전쟁의 강력한 보루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는 앞길을 환히 밝혀준 투쟁과 전진의 등대였으며 국내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온성지구를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전략적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성새로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끝없이 빛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항일혁명의 전략적거점을 꾸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이 땅우에 불패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우리 당을 떠받든 만년초석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공고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갈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들이 삼삼히 물결쳐온다.

우리 수령님께서 새형의 당을 창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시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였다는 소식을 들으신 다음부터였다.

그후 여러해동안의 혁명활동과정을 통하여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토대하여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였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된 후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는 당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 당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맡아하시였다. 그 과정에 주체19(1930)년 10월 1일 온성군 두루봉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되는 당조직이 결성되였다.

국내당조직이 결성된 후 국내의 당건설사업은 두만강연안일대에 국한되여있었다. 우리 혁명을 더욱 앙양시키자면 국내의 넓은 지역에로 당조직을 확대하여야 하였다.

이 요구를 반영하여 조직된것이 온성지구당위원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성지구당위원회를 조직하시던 일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주체23(1934)년 2월 지금의 온성군 풍인로동자구에 있는 진명서숙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확대하며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적지도기관을 내오도록 하였다고 쓰시였다.

1930년대 전반기 기층당조직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무장투쟁은 강화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각급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주체23(1934)년 5월말 다홍왜에서 새로운 당지도기관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이를 최고령도기관으로 하는 당조직기구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당조직구조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ㅌ.ㄷ》결성과 주체사상의 창시, 여러 당조직건설을 통하여 튼튼히 쌓으신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만년초석으로서 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 항일혁명의 전략적거점을 꾸리시던 나날에 ‖

혁명조직강화에 선차적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성일대를 항일혁명투쟁의 믿음직한 근거지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혁명조직이 노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이곳에 진출하신 첫날부터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의 혁명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였다. 온성지구 혁명조직의 한 성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가 공사장에서 남포군으로 일하는 동안 화약을 비밀리에 모아두었는데 차굴공사가 완공되는 날에 그것으로 차굴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통하여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혁명의 전략적문제에 대한 리해에서 착오를 범하고있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혁명조직성원들에게 차굴을 폭파하는것보다 조직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혁명조직이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 비합법적인 투쟁을 벌리는것만큼 대오안에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고 조직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국내혁명조직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였다.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도록

온성일대를 혁명화하여 이곳을 조선혁명의 전략적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면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도였다.

어느날 여러 혁명조직책임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후에 있게 될 두루봉회의준비를 위하여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며 온성일대를 조선혁명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리자면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혁명조직성원들이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면하여 《조선혁명의 진로》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만주일대의 새 세대 혁명가들은 5.30폭동과 8.1폭동으로 하여 조성된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굴함없이 카륜회의방침을 관철해나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온성일대를 하루빨리 혁명화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이 심어주신 단결의 불씨

단결은 승리이고 승리는 단결이다.

철길부설공사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식하고계실 때였다. 한 로동자가 달려와 자기 동료들에게 한달전에 일제의 철길부설공사를 반대하는 삐라를 뿌린 청년이 경찰들의 모진 고문끝에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로동자들은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터놓는 로동자들을 둘러보시며 일제가 이곳에 철길을 부설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교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의 재부를 마음대로 략탈하고 국경경비진을 강화하며 대륙침략의 발판을 닦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이 크게 승리할수 있은것은 그 투쟁이 길림시내 학생청년들과 길회선철도부설에 참가한 로동자들, 철도부설로 땅을 빼앗긴 주변의 농민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일제와 맞서싸웠기때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진 혁명의 불씨였다.

본사기자

백두의 숭고한 넋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갈 신념의 대오 끝없이 흐른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찍음

전당이 사상의지적통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백전백승의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하여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룬 당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면모와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야 그에 기초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여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백전백승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그러자면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꿋꿋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불패의 위력을 떨쳐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의 사상의지적단결은 비상히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전체 당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각을 해도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며 걸음을 걸어도 령도자와 보조를 함께 하는것이 우리 당대오의 참모습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우리 당과 같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이 일심단결되여있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은 일찌기 없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고있다.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대변혁이 이룩되고 오늘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속에서 온 세상을 들었다놓는 위대한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령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대표회들에서는 일치하게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전당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무엇보다도 령도자와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수령결사옹위의 대부대를 가진데 있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사상과 령도의 유일중심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권위, 업적을 결사옹위하는 불굴의 투사들로 굳게 뭉쳐진 당만이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백승을 떨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는 조직사상적전일체이며 우리의 로동당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장군님의 전사들이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것은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삶과 투쟁의 근본초석으로 되고있다.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며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길에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열혈충정의 인간들이 당대오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당이 그처럼 강한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투철한 신념의 표대이다. 최후의 순간에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위해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한 길영조영웅, 몸은 비록 불에 탈수 있어도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은 절대로 태울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무재봉의 영웅전사들, 사나운 풍랑속에서 날바다와 싸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보위한 우리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투쟁정신은 온 세상을 경탄시키고있다. 이런 수천수만의 용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를 이루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에 우리 당과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또한 전당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사상적순결체를 이룬데 있다.

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당이 사상의지적통일체를 이룰 때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강위력한 당으로 존엄을 떨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에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의 원리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시였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시고 주체의 선군사상을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21세기 자주위업승리를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고있는것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당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꽉 차넘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사업과 당활동을 주체의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가고 전체 당원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라난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하여 비렬한 심리모략전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확고부동하다. 혁명의 수뇌부와 당, 군대,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진지를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당의 필승불패성은 또한 전당이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은 강성번영의 휘황한 미래로 이어진 조선의 결심이며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드림없는 실천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의 앞장에는 우리 당원들이 서있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에서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주체사상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르며 광란하는 날바다를 길들여 조국의 대지를 넓히는것과 같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우리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용맹한 결사대, 적극적인 선봉대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진리로 간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수백만당원들이 있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유훈과 장군님의 결심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령도자가 벽을 울리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천지를 진감시키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결사관철정신이 대고조진군길에서 총폭발되고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일심단결의 기치밑에 우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역할을 높여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독보와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부터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들끓는 작업장으로 달려나가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갱에 내려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선군혁명실록을 현실과 결부하여 해설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과 불패성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CNC화를 실현한 자랑안고 당대표자회를 맞이하는 크나큰 긍지

평 양 곡 산 공 장 에 서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에 수놓아진 헌신의 자욱

삼복의 무더위가 가셔지지 않은채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 8월말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된 평양곡산공장은 이른아침부터 바다처럼 끝없이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희한하게 꾸려진 현대화된 일터에 다시 모실 그날을 그리며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그리고 많은 교원, 연구사들과 련관부문 로동계급이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록음우거진 구내에서 현대화된 생산공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장 당과류직장 현장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종합조종실에서 콤퓨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조종공들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대견하게 보아주시고 공장책임일군의 구체적인 설명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시며 사탕, 과자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생산현장을 찾으시였다.

과일향기가 풍기는 사탕작업반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창안하고 우리 로동계급이 제작완성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울리며 기세좋게 가동하고있었다.

길게 늘어선 흐름선에서 련속 쏟아져나오는 먹음직스러운 알사탕들이 알포장기와 봉지포장기에서 맵시있게 포장되여나오는 광경도 이채로왔지만 과자굽는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파자생산현장의 흐름식생산공정은 또 그것대로 볼만 하였다.

그처럼 뵙고싶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모신 긍지로 하여 기대공들의 얼굴마다에는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을 펼쳐주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드롭프스의 성형공정, 랭각공정, 알포장공정 등을 거쳐 백합파자공정을 돌아보시면서 파자구이로앞에 이르시였다. 거기에서 장군님께서는 백합파자를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며 대단하다고, 이만하면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당과류를 공급할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우리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돌이켜보면 공장의 현대화실현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장을 후덥게 해주고있다.

지난해 12월 찬바람을 맞으시며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 어린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시면서 현대화사업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벌려나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공장의 능력확장공사도 발기해주시고 새로 조업한 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인민들에게 맛있는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대화의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비약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이 요구되면 많은 과학자들과 실력있는 로동계급의 부대를 보내주시여 식료공업부문에서의 CNC화를 우리식으로 완성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인 당과류생산공정이 새로 건설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의 현대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사탕, 과자를 듬뿍이 안겨줄 그날을 위해 은정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자고 노력해온것뿐인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사탕폭포, 과자폭포 쏟아지는 현장에 찾아오시여 그 공로를 고스란히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공사에 동원된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시며 분에 넘친 감사를 주시였으니 어찌 그들 모두가 감격과 행복에 눈시울 적시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은 공장의 제품전시장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제품전시장에는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파일향알사탕이며 드롭프스, 락화생사탕, 파일향과자, 백합과자 등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갖가지 사탕, 과자봉지들이 풍성하게 진렬되여있었다.

더우기 특색있게 설계한 상표도안으로 하여 이채를 띤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현대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높인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주시고 한 상표도안공의 수고도 다심하게 헤아려주시며 포장용기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방도도 의논해주시였다.

진정 평양곡산공장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더욱 현대화된 공장으로 우뚝 솟아나게 되였다.

오늘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명 흥 숙

두뇌전, 기술전으로 최첨단을

여러 대학,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힘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원료의 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이 CNC화되여 조종공이 콤퓨터화면을 통하여 생산을 지휘하는 희한한 정경이 공장에 펼쳐졌다.

지난해 12월,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공급해주자고 하시며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이 공장의 기술개건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도와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새기며 공장으로 달려온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과 국가과학원의 교원, 연구사들은 말은 기술과제수행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계도면에 하나하나의 점을 찍고 선을 그어가며 기술과제를 완성해나갈 때 이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려는 마음뿐이였다.

기술개건공사장의 낮과 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같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짧은 기간에 수만매에 달하는 설계도면이 완성되였고 우리 식의 기발한 착상과 기술로 공정조종프로그람과 종합조종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외에도 현대적설비인 자동주머니포장기설계가 완성되였고 드롭프스와 기름사탕 농축기조작판에서 제기되던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과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설비제작을 위하여 여러 기계공장으로 교원, 연구사들이 달려나가 그곳 로동계급과 제작전투를 함께 벌렸으며 공장에 돌아와서는 현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밤깊도록 설비조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고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화된 설비들을 자체로 운영할수 있도록 수십건의 기술지도서와 사용지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설비들에 빨리 정통하도록 기술지도사업도 책임적으로 하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식료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나날에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은 우리 장군님과 뜻도 숨결도 함께 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글 본사기자 리 철 옥
사진 본사기자 리 명 남

자 랑 많 은 혁 신 자 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김영호동무는 당과류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람개발에서 한몫 단단히 한 과학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피타는 탐구와 열정을 바쳐 여러 공정의 프로그람들을 우리 식으로 훌륭히 개발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연구사 리응희동무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많은 기술과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평범한 과학자를 박사로 키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마음을 안고 그는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 대학이 맡은 기술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당과류직장 김경순동무는 지난 기간 당과류생산에 성실한 땀을 바쳐온 혁신자이다.

한가정의 주부이기 전에 수도시민들에게 당과류를 생산보장하는 중요한 일을 맡아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기술개건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그는 오늘도 종합조종반을 능숙하게 다루며 사탕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기술준비실 평창옥동무는 공장이 자랑하는 상표도안공이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상표도안공으로 일해오면서 제품들의 특성에 맞는 상표도안을 내놓기 위하여 피타는 사색을 기울여왔다.

그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깃들어있는 많은 상표도안들은 제품생산에 적극 리용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동무

리응희동무

김경순동무

평창옥동무

현대화된 사탕, 과자생산공정

당 과 류 직 장 을 찾 아 서

우리는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당과류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직장에서는 CNC설비들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리고있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생활분제를 하루빨리 풀어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당과류직장의 생산건물에 들어서니 제일먼저 안겨오는것이 종합조종실이였다.

환하게 꾸려진 종합조종실에서 우리와 만난 직장장 김준모동무가 콤퓨터화면에 현시된 생산공정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들로 CNC화된 당과류생산공정입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을 여기에서 종합조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설비들의 가동으로부터 제품생산량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타일을 곱게 입혀 보기에도 산뜻한 위생통과실과 공기차단막을 거쳐 현장입구에 이르렀다.

유리창을 통하여 현대화된 사탕생산흐름선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는 수많은 설비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흐름선을 이루고 고르롭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하얀 위생복차림으로 현대적인 기대들을 척척 다루는 기대공처녀들의 얼굴마다에는 영광의 그날을 안고 당과류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려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열정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공장의 3대혁명소조원은 우리에게 생산공정의 CNC화가 실현됨으로써 당과류생산을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로 늘일수 있게 되였으며 그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흘러나온 알사탕들을 여기에서 종합조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설비들의 가동으로부터 제품생산량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타일을 곱게 입혀 보기에도 산뜻한 위생통과실과 공기차단막을 거쳐 현장입구에 이르렀다.

유리창을 통하여 현대화된 사탕생산흐름선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는 수많은 설비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흐름선을 이루고 고르롭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하얀 위생복차림으로 현대적인 기대들을 척척 다루는 기대공처녀들의 얼굴마다에는 영광의 그날을 안고 당과류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려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열정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공장의 3대혁명소조원은 우리에게 생산공정의 CNC화가 실현됨으로써 당과류생산을 지난 시기에 비해 3배로 늘일수 있게 되였으며 그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흘러나온 알사탕들이 포장되여 무드기 쌓이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절로 흐뭇하게 하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닭공장, 오리공장들에서 알폭포가 쏟아지던것이 어제같은데 오늘은 사탕폭포, 과자폭포가 쏟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백합과자와 드롭프스생산공정을 차례로 돌아본 우리는 구수하게 풍겨오는 냄새에 이끌려 과자작업반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과자구이로를 거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과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기쁨속에 오래도록 보고 또 보았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당과류생산공정들을 돌아볼수록 우리는 당의 고마운 은정에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직장을 떠났다.

글 및 사진 정 경 철

과 일 향 기 넘 치 는 마 을

황 주 군 삼 훈 리 를 찾 아 서

얼마전 황주군 삼훈리를 찾았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모습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가을걷이전투가 한창인 포전들과 산기슭에 자리잡은 축산기지, 아담한 살림집들…

더우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은 집집의 지붕을 가리우며 푸른 잎 무성한 가지마다에 열매가 주렁진 대추나무들이였다. 리소재지마을은 마치 대추나무숲속에 들어앉은것만 같았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잘 가꾸며 보호하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에 과일나무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난 리일군은 삼훈리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리에는 과일나무라야 뒤산에 있는 몇그루의 오래 자란 대추나무가 전부였다. 그런 때 이 고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추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는 숭고한 뜻이 담긴 사랑의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뜻을 높이 받들고 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대추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을 꾸준히 심고 가꾸어왔다. 그리하여 어디에나 대추나무들이 푸르러 설레이게 되였고 오늘은 온 동네가 그대로 대추나무숲속에 묻히게 되였다.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으며 우리는 대추나무들이 늘어선 마을길에 나섰다. 랑랑하게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유치원에로 이끄는것이였다. 대추나무들이 던져주는 시원한 그늘밑에서 마음껏 뛰노는 귀염둥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즐겁게 해주었다.

아담하게 자리잡은 문화회관과 리인민병원을 비롯한 마을의 곳곳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만 갔다.

지붕을 덮도록 높이 자란 대추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린 나무들도 보였다. 알고보니 리에서는 해마다 좋은 품종의 대추나무들을 심고있었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수백그루의 대추나무들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제11작업반 마을을 찾았다. 매 집들에 7그루이상의 대추나무들이 있고 마을길과 공공건물주변에도 대추나무들이 늘어서있는 마을은 말그대로 하나의 과수원이였다.

가지가 휘도록 열매들이 주렁진 대추나무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였다.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며 리일군은 이 마을에만도 1천여그루가 넘는 대추나무들이 있다고 자랑하는것이였다.

이 마을에서 한해에 따는 대추만 해도 여러t이나 된다니 대추고장으로 소문이 날만도 하였다.

우리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중동마을의 어느 한 가정에도 들려보았다.

키높은 대추나무가 뒤마당에 병풍처럼 늘어서있고 앞뜰에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이 있는 살림집은 볼수록 정다웠다.

우리를 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로인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봄에는 꽃속에, 여름에는 열매속에 묻히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에 넘친다.

어디 그뿐인가. 철따라 제집뜨락에서 갖가지 과일을 따먹는것은 물론 물도 얻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

눈굽을 적시며 우리 장군님의 은덕속에 복받은 고장이 되였다고 절절하게 하는 로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마을마다 차넘치는 과일향기, 그것을 어찌 자연이 가져다준 향기라고만 하랴.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속에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행복의 향기로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우리는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질 삼훈리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한 성 일

당창건 65돐을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일 마음안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석탄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과 철강재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당정책적요구대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채탄장들을 더 많이 마련하는것을 석탄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아래탄광들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굴진막장들에 로력도 더 보충해주고 장비와 소공구들도 충분히 마련해주게 하면서 모든 갱, 막장들이 드높은 증산열의로 들끓게 하고있다.

혁신은 흑령탄광 로적갱, 강동탄광 혁신갱, 령남탄광 1갱 기본굴진소대들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백영길기본굴진소대를 비롯한 흑령탄광 로적갱의 기본굴진소대들에서는 소대별, 교대별작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앞선 굴착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굴진속도를 계속 높이고있다.

김치봉기본굴진소대를 비롯한 강동탄광 혁신갱의 기본굴진소대들에서는 작업이 끝나면 다음교대가 인차 굴진을 할수 있게 서로 도와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령남탄광의 기본굴진소대들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부족한 소공구와 장비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맡겨진 굴진계획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굴진에서 앞선 단위들의 일군들과 굴진공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부쩍 돋구어주고있다.

굴진이 빠른 속도로 전진함에 따라 석탄생산실적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석탄생산에서는 령남, 흑령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앞서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아래탄광들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건을 실현하는것을 석탄증산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전망성있게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최근에 덕산탄광에서는 현대적인 탐사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탄폭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구역들을 확정한 다음 갱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흑령탄광과 강동탄광, 령남탄광들에서는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갱들의 새로운 탄층을 정확히 찾아내고 굴진에 대한 기술공정설계를 정확히 하여 탄폭이 크고 운반조건이 좋은 구역들에 대한 기본갱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아래탄광들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 풀어주면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고있다.

특파기자 최 재 남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와 부속품을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해주련결농기계공장과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로동계급이 더 많은 농기계와 부속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

해주련결농기계공장 일군들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생산과 기술혁신사업에서 창조된 긍정적사실들을 널리 소개하면서 경제선동을 전투적으로 벌림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고있다.

전투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온 공장구내에 각종 기계설비들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변속기와 감속기 등 농기계 본체생산을 맡은 1, 2가공직장 로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고 분과 초를 쪼개가면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히 1가공직장에서는 부부기대공들인 김충혁, 한희옥, 오랜 선반공인 민근식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전투원들 모두가 날마다 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혁신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소재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창조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자기 교대작업을 마치고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소재직장의 단조작업반에서는 공무직장 수리작업반원들과 합심하여 공기마치의 능력을 더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만들어내며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발전계획을 혁신적안목에서 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각종 뜨락또르부속품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년 계획수행기간에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직장과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더 활발히 조직하고있다. 경쟁대상과 경쟁조항이 바로 설정되고 그 수행정형에 대한 총화평가사업이 잘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경쟁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2가공직장을 비롯하여 가락지생산을 맡고있는 공구, 공작기계, 생필직장이 경쟁적으로 부속품생산을 진행하고있다.

매달 맡겨진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2가공직장 1작업반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많은 부속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소재와 주물품생산에도 힘을 넣으면서 긴장한 부속품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65년전 그날의 사연을 길이 전하는 급양봉사기지

칠성각에 깃든 사랑과 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수도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모란봉기슭에는 오래전부터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칠성각이 자리잡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친히 그 이름까지 지어주신 이 식당은 국수, 노치 등 여러가지 민족음식과 짜장, 교즈, 빵을 비롯한 각종 음식을 봉사하는 수도의 급양봉사기지의 하나로서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칠성각을 찾은 우리는 주민지구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3층짜리 식당건물을 깊은 관심속에 돌아보았다.

대중식사실과 여러개의 료리식사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주방 등을 가지고있으며 하루에 2 000기가 넘는 식사를 봉사할수 있고 매달 10여차의 결혼식도 보장할수 있는 칠성각은 최근에 들어와 타조불고기를 비롯한 타조고기음식 봉사로 더욱 흥성거리고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영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식당이 소문나게 된것은 식당의 오랜 력사나 음식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칠성각에는 참으로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깃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방직후에 있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주체34(1945)년 9월 28일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평양시를 돌아보시고나서 당시의 평안남도당청사에 들리시였다. 때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다.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점심식사도 미루며 사업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항일투사들은 오늘 점심식사는 대동강숭어국을 잘하는 식당에서 하면 좋겠다는 청을 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동무들의 소원이면 그렇게 하자고, 나도 대동강숭어국을 먹어본지 이제는 20년이 지났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칠성각의 전신인 한 식당을 찾으시게 되였다.

해방전부터 있던 이 식당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일대에서 제일 덩치가 큰 식당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식당을 찾게 된 항일투사들의 기쁨은 자못 컸다. 그런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식사할 돈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때 한 일군이 식사값은 도당후방경리자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 말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식사비를 경리자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금을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 건국사업에 써야 한다고 타이르시였다. 그때 한 항일투사가 어제 만경대에 갔다가 리보익할머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식사비를 물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돈으로 오늘 내가 동무들과 함께 식사를 한끼 하였다고 하면 우리 할머님도 기뻐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식당에서 항일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 동무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대동강숭어국을 맛있게 먹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대동강숭어국은 옛날부터 맛이 좋아 소문이 났다고 하시면서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동무들과 함께 식당에서 숭어국을 먹게 되니 1940년 안도현 처창즈부근 밀림속에서 식량이 없어 대원들에게 밥도 한그릇 해주지 못하고 5. 1절을 지낸 일이 지금도 가슴에 걸린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그때 우리는 식량도 없고 소금도 없어 개울에 나가 개구리를 잡아 맹물에 삶아먹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그날 저녁 대원들과 함께 우등불가에 앉아 그들에게 우리 조선은 문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다, 땅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세면의 바다에는 물고기떼가 욱실거리며 가을에는 기름진 대지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 인민이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내가 나서자란 평양에만 하여도 사시절 경치좋은 모란봉과 만경대가 있으며 유명한 평양랭면과 맛좋은 대동강숭어국을 비롯하여 자랑할만 한것이 많다, 하루빨리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모두 평양에 가서 대동강숭어국을 먹어보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때의 리상이 오늘은 현실로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식사를 마치고 떠나시기에 앞서 식당의 봉사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평양시민들이 주문하는 결혼식음식도 보장해준다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평양시의 식당들을 깨끗하게 잘 꾸리고 거기에서 랭면, 숭어국, 단고기장, 신선로, 전골, 녹두지짐과 같은 민족음식을 다양하고 맛있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물자보장을 위한 기지를 꾸려놓고 식당들에 물자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료리사들이 료리기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지배인 김영희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칠성각의 부피두터운 연혁사를 펼쳐보였다.

연혁사에는 인민을 위한 길을 함께 걸으시며 수도의 한 식당에도 끊임없이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갈피마다 새겨져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이 식당건물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 짧은 기간에 건설하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어느날에는 이곳에서 만든 국수맛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국수를 잘한다고, 국수를 잘하려면 우선 육수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육수를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수를 더 잘하라고 식당종업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조선사람들은 국수를 좋아한다고, 한그릇의 국수에서도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끼게 되고 조국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심이 싹트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것이라고 하시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민족음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도시민들이 김일성경기장이나 모란봉공원에서 휴식하고 평양랭면까지 먹고갈수 있게 칠성각을 개건하도록 하시고 새로 짓게 되는 칠성각의 규모도 친히 정해주시였다. 그러시고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식사실들도 구색이 맞게 배합하도록 하시고 가공실과 랭동실들도 그쯘히 갖추도록 해주시였다. 또한 료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그대로 고난의 시기에도 칠성각에 많은 원자재들을 보내주시면서 수도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적극 진행하도록 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칠성각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봉사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 나날에 식당에서는 료리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이고 그 질을 높여나갔으며 일상적인 봉사와 함께 명절봉사, 이동봉사 등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 진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우리 민족음식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과 원군사업을 비롯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칠성각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은정깊은 감사를 거듭거듭 보내주시면서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칠성각을 찾으신지 6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도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떨쳐나가는 길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할 열의와 각오에 넘쳐있다.

글 본사기자 허명숙
사진 전성남

송도원은하피복공장 제5작업반원들

제품마다에 정성을

《우리 공장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5작업반으로 안내하던 공장의 일군인 리분희동무가 우리에게 한 말이다. 새겨볼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을 지켜섰다는 긍지를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5작업반원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기대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오는 휴계실에서 우리는 작업반장 박한남동무와 마주앉았다. 흐름식으로 진행되는 피복제품생산은 높은 책임성을 요구한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킨 보람이 있어 작업반은 모든 면에서 공장의 앞장에서 내달릴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박한남동무는 초급일군인 전영옥동무를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기능공이기도 한 그는 10여년을 한직종에서 일해오는 혁신자였다. 솜씨있게 포장작업을 해가면서 그는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우리를 자각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공정보다 다음 공정을 먼저 생각하였고 작업반전체의 생산을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일하였다. 기능공들은 신입공들을 도와 퇴근길을 미루었고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가정부인 혁신자들의 성과속에 깃들어있는 집단과 가족들의 진심어린 노력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때로 힘에 겨워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박한남동무는 그들에게 말하군 하였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로동계급처럼 조국이 기억하고 후대들이 자랑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고…

그들은 꾸준히 노력하여 기능공대렬에 당당히 들어섰고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들만이 아닌 작업반원모두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을 지켜섰다는 긍지를 안고 제품마다에 뜨거운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갔다.

그 나날 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작업반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오늘도 5작업반원들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들어설 결의에 넘쳐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리경일

우리 인민보안원들

안악군인민보안서 일군들과 보안원들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돕고있다. 신촌협동농장에 나간 인민보안원들은 정초부터 영농공정마다에서 올해농사를 더 잘 짓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지난 여름 억수로 내리는 무더기비로 불어난 물이 제방뚝을 넘어날 때였다. 인민보안원들은 앞장서서 제방뚝을 더욱 든든하게 쌓았으며 군안의 다른 곳으로 나갔던 인민보안원들도 사품치는 물속에 뛰여들어 수문을 열어놓아 많은 면적의 포전을 큰물피해로부터 구원하였다.

인민보안원들은 흙에 묻힌 벼 한포기를 보아도 바로세워주고 김매기철에 돌피 한대를 보고도 걸음을 멈추고 뽑아주고야 가던 길을 잇군 하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우리 인민보안원들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제인 카펀터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고향집방문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당창건사적관, 개선문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정신력이 폭발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년간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성과를 안고 당보지상연단에 나서게 되니 보람도 크고 생각도 깊어진다.

우리 기업소에서는 올해에만도 혜성강청년2호발전소, 연산군민발전소 등 도처에 일떠서는 수력발전소들에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보내주어 발전소의 성과적조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여러대의 대규모수력발전설비생산을 결속하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수많은 제관품들을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중요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추진하여 8월말까지 맡겨진 년간 공업생산액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업소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 대안의 로동계급은 수많은 발전설비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축성하며 특히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지금 더 많은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를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대안의 로동계급은 전후 맨주먹으로 폐허를 가시고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총공격전을 벌려 맡겨진 전투과제를 2배, 3배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대문을 여는데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는 우리 기업소로동계급의 정신력분출의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기업소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꾸리고 더욱 완비함으로써 발전설비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대안땅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기업소에서는 년초부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희천1, 2호발전소건설에 지장없이 발전설비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제관품생산에 큰 힘을 넣고 기업소의 력량을 총집중함으로써 굽은관, 회리실을 비롯한 방대한 량의 제관품의 생산기일을 계획보다 훨씬 단축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세찬 불길속에서 대상설비제관직장을 비롯한 소재부문의 로동자들은 타빈안내장치, 기계틀 등 중요설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발전설비1가공직장, 대형기계직장 등 가공부문의 기대공들은 단조품소재들이 보장되는데 맞게 발전기축, 타빈축을 비롯한 가공주기가 오랜 부속품생산에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였다. 희천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총돌격전을 들이댐으로써 필요한 모든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기업소에서는 4. 15기술혁신돌격대원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못 잊을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5축동시조종수력타빈 날개가공반을 만들어낸 그 열정, 그 기백로 여러대의 특대형공작기계들의 CNC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주기를 훨씬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성과도 크고 긍지와 자부심도 넘친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우리 대안의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생산에서 비약의 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장원규

변함없이 걷는 원군길

연안군직매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서 삶을 빛내여가고있는 미더운 봉사자들속에는 3대혁명붉은기 연안군직매점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전국적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직매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상품류통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봉사활동을 벌려나가고있는 이 직매점에 여러차례에 걸쳐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그 나날 지배인 우정혜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이곳 봉사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보답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나날에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인민군군인들과 군안의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제대군관, 제대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잘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성심성의로 해오고있다. 이 직매점봉사자들은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제대군관, 제대군인들에 대한 공급대장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며 새 가정을 이루는 제대군인들의 결혼상도 차려주고있다. 그리고 령도업적단위인 오현협동농장에 진출한 제대군인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농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면서 진심을 바쳐 도와주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해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이 오면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고있다. 이들의 모습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낸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이다.

하기에 초소의 군인들은 직매점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자기들의 친어머니, 친누이로 정답게 부르고있다.

구분대의 한 군인이 군사임무수행중에 뜻하지 않게 앓아눕게 되였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직매점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종업원은 귀한 약재를 가지고나왔고 다른 종업원들은 건강회복에 필요한 별식들을 마련하였다.

직매점종업원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그 군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초소에 다시 서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의 부모가 직매점에 찾아와 거듭 감사를 표하자 지배인 우정혜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조국은 더욱 강해지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는 신념을 지녔기에 직매점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군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이곳 봉사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업봉사활동을 적극 벌리면서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따뜻이 돌봐주고 원군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철원군 백로산리에서는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장원들이 언제나 신심과 랑만에 넘쳐 일해나가도록 하여 영농공정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으며 예술선동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계획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많은 농장원들이 참가하는 합창공연무대를 펼치고 손풍금과 하모니카, 북과 피리, 나팔 등 여러가지 악기들도 능란하게 다룰수 있도록 농장원들을 준비시켰다.

수백명의 농장원들이 참가한 합창공연은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으며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결심을 굳게 다지도록 하였다.

로농통신원 리동춘

실천적 모범으로

김철의 편지에 지적되여있는것처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돌격구령을 힘차게 내리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킬 때 어디서나 전진과 비약의 발구름소리가 요란히 울려나오고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새 소식들로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군보다도 실천력이 강한 일군이 필요합니다. 실천으로 당을 받드는 사람이 진짜충신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인민생활과 직접 련관되여있는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의 개건사업을 끝낼 목표를 세웠을 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군자체의 힘으로 꼐 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었다. 여러개 대상들에 대한 개건사업을 동시에 내밀어야 하였는데 자재도 로력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책임일군들부터 한개 단위씩 맡아가지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가슴속에 오늘의 개건사업이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었다.

한대의 설비, 하나의 건물을 개건하여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그리고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해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적극 발동하였다.

한편 공사규모가 제일 큰 군식료공장개건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개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전개하였다.

군식료공장개건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나날 일군들은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걸린 문제도 앞장서 풀어나가며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일군들부터 앞장서니 누구나 따라섰다. 군안의 인민들은 스스로 개건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한몫씩 맡아 해제꼈고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식료공장개건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는 련이어 군안의 기계수리공장, 피복공장, 독공장 등 여러 단위들의 개건사업도 내밀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의 개건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팡팡 공급해줄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이미 내세운 목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실천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미치도록 하겠다.

맹산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동히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공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친필현판을 건립하였다.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리시여 현판에 새길 김정숙평양잠제사공장 이름을 친히 써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앞장에 설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지금 공장의 로동계급은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이하게 된 이 시각 공장의 어디서나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며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명주실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공장에서는 9월 10일까지 근 340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지난해 공장을 찾아오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들은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명주실생산에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조선의 특산물인 비단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단천을 공급하기 위한 투쟁에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겠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지배인 김명환

련방제통일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상최대의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북과 남이 합의한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그 현실적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 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련방제방식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우리 공화국은 북과 남에 다같이 해를 주지 않으면서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련방제통일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련방제통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끌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왔다. 이러한 민족이 미국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살고있는 비극적현실은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길이다.

련방제통일방안에는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념원하는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받음이 없이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명시한 바로 여기에 련방제통일방안이 최선의 조국통일방도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련방제통일은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인 통일방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60여년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언제가도 통일을 이룩할수 없고 전쟁이라는 민족적참화밖에 빚어낼것이 없다. 현실은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련방제통일방안은 바로 이러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전민족의 대단결로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련방제통일방안대로 하면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손해볼것이 없다. 지난 시기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들의 력사적인 회합에서 련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합의, 확정한것은 바로 그것이 민족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거나 우위에 놓을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서로 신뢰하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싸우지 않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택해야 한다. 련방제통일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로 될것이며 그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오고있는 《제도통일》론은 반민족적인 대결전쟁론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운운하며 그 무슨 《3단계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련방제통일방안에 완전히 배치되는 명백한 《제도통일》방안이다. 그것은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제도통일》야망을 끈덕지게 추구해온 남조선보수당국의 반민족적 기도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이 《3단계통일방안》을 들고나오는것은 외세와 공모하여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전복하고 남조선의 썩어빠진 식민지파쇼통치체제를 북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과 남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불순한 기도가 내포된것으로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확약한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도통일》은 그 실현 방도가 어떠하든지 대결과 전쟁을 전제로 하고있다. 《제도통일》시도는 불피코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빚어내게 된다.

동족사이의 대결과 전쟁을 방지하면서도 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가 바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유일하게 정당한 자주통일의 방도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련방제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김 정 옥

대결야망을 드러낸 《주적》 소동

《한나라당》이 《국방백서》에 우리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극단적인 대결세력으로서의 본성을 다시금 드러내고있다. 《한나라당》 패들은 모략적내막이 다 드러난 《천안》호사건을 또다시 거들면서 올해 《국방백서》에 반드시 북을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의 추태로서 북남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우리와 무한정 대결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반민족적망동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겨레 누구나가 악화된 북남관계가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고있다. 북남사이에는 현재 적십자인도주의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계속 대결하는가 아니면 협력과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가 하는것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한나라당》은 대세에 역행하면서 《국방백서》에 한사코 우리를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우기고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없으며 구태의연하게 대결정책을 유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국방백서》에 우리를 《주적》으로 표기하는것은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정책화를 공식 선언하는것으로 된다. 동족을 화해할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과 전쟁을 공공연히 정책으로 들고나오는것이 6.15통일시대에 용납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적》론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전쟁론으로 남조선 각계의 버림을 받고 이미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한나라당》이 그 더러운 시대의 오물을 다시 꺼내들고 《주적》 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위업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동족을 《주적》으로 대하면 북남관계는 헤어나올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된다. 6.15이후 활기를 띠고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탄된것도 남조선집권세력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대결정책을 들고나왔기때문이다. 최근 남조선 군부세력이 함선침몰사건을 터무니없이 《북의 소행》으로 결고들면서 《주적》개념부활을 시도하고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림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빠지였다. 그런데 이제 남조선에서 《주적》론자들의 기도가 실현된다면 북남관계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 민족이 《한나라당》 패거리들의 망동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은 력대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면서 동족대결을 앞장에서 고취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북남대화를 그 누구에게 《끌려다닌 대화》로 모독하고 북남협력을 《퍼주기》로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건것이 다름아닌 이 반역당의 대결광신자들이다. 그들은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기미가 나타나고있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바빠하고있다. 동족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이 골수에 꽉 들어찬 보수패당의 체질적악습이 발작하고있는것이다.

《한나라당》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고무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외면하고 《주적》론을 악의에 차서 떠들어대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민족의 중대사인 북남관계문제는 결코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롱락물이 될수 없다.

《한나라당》은 반통일대결당의 오명을 벗으려거든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민족적인 관념을 버려야 한다.

최 철 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965호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내외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조선서해상에서 구축함, 잠수함, 초계함, 초계기를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련합대잠수함훈련이라는 전쟁불장난을 또다시 벌려놓으려고있다.

그리고 10월말에는 미국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끌어들여 조선서해에서 항공모함강습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할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조선반도긴장완화를 위한 노력과 북남관계개선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군사적도발이고 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치기 위한 계획적인 전쟁망동이다.

더우기 괴뢰패당이 우리와 마주앉아 적십자인도주의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함선침몰사건이후에만도 조선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조선 전지역에서 벌써 수차례나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렸다.

전례없는 빈번한 전쟁연습은 그들이 북침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실전에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서 공화국지역에 대한 점령을 전제로 한 극히 도발적이고 불순한 《안정화작전》이 극비밀리에 진행되고 괴뢰군부가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이를 《대북군사정책》방향으로 책정하려 하고있으며 괴뢰륙군정책보고서에 북을 《주적》으로 뻐젓이 박아넣은 사실은 호전광들이 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괴뢰패당이 요즘에 와서 짹하면 대잠수함훈련이요 뭐요 하는데 그들은 아마 잠수함공포증에 걸려있는 모양이다.

괴뢰패당은 지난 8일 조선동해에서 그 무슨 북의 잠수정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탐지되였다고 하면서 경계령을 내리고 구축함, 초계함, 잠수함, 초계기 등을 출동시켜 폭뢰까지 터뜨리면서 복닥소동을 벌렸으나 며오른 《괴물체》가 결국 통나무라는것이 확인되여 만사람의 웃음거리로 되였다.

괴뢰패당이 그 누구의 잠수함이 그처럼 무서우면 정세를 긴장시키는 도발적망동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대방을 자극하여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킬뿐 사태해결을 위한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

괴뢰패당은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립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대화를 바라지만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것이다.

주체99(2010)년 9월 26일
평 양

공화국의 창건은 새 생활창조의 길을 열어놓은 사변

블레찐 《통일》 8, 9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블레찐 《통일》 8, 9월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8월호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시의 경공업부문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편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신 소식을 블레찐은 게재하였다.

블레찐은 《통일된 조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제목밑에 리명박역도가 《8.15 경축사》라는데서 《통일세》를 운운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규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을 실었다.

또한 블레찐은 일제에 의한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 날로 100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편집하였다.

블레찐은 이밖에 조국소식, 국제소식들을 실었다.

블레찐은 9월호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화의 모범광산인 3월5일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사진과 함께 집중편집하였다.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블레찐은 《오늘의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공화국의 창건은 봉건적락후와 빈궁속에서 헤매이던 조선인민에게 새 생활창조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고 썼다.

그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

네팔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네팔위원회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여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인민을 분렬시킨 근원이라고 하면서 그 비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남쪽을 강점하였을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이 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후 미제국주의는 핵무기를 포함한 방대한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도 감행할수 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선민족분렬의 근원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이미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나 협정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한적이 없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세계의 공정한 량심과 국제법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네팔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네팔위원회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되게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서해해상합동군사연습 감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격렬비렬도주변을 비롯한 조선서해의 여러 수역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해상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24일 괴뢰합동참모본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이번 해상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군의 공격형잠수함들과 일본 요꼬스까기지에 전진배치된 유도탄구축함들, 하와이에 주둔한 미제9초계비행대대소속 초계기 그리고 괴뢰군의 각종 함선들과 비행기 등 방대한 무력이 동원된다고 한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잠수함침투를 운운하며 이에 대비한 전술과 기술, 대응절차를 집중적으로 훈련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해상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고있음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미제와 리명박호전세력은 모략적정세가 여지없이 드러난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불장난소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경찰청장임명놀음을 비난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얼마전 부정부패와 독재를 일삼아온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조현오로 말하면 10.4선언에 수표한 전직 《대통령》을 헐뜯고 《승진하려면 리상득이나 리재오에게 불어야 한다.》는 등의 망발을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라고 밝혔다.

또한 그가 온갖 부정행위로 거액의 돈을 긁어모은데 대해 사설은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단순한 말실수이므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그를 끌내 경찰청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저들에게 추종하는자들을 내세워 임기말까지 집권안정을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이런자를 경찰의 우두머리자리에 앉혔다 하여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위신을 바로세울수 없고 민중의 인정도 받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함선침몰사건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

남조선 각계가 국방부의 기만적인 《천안》호사건 최종보고서발표놀음에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방부의 함선침몰사건 최종보고서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더 큰 의혹만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함선침몰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눈가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사건해명을 위한 《국정조사》실시를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함사건진실규명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하여 군부패당이 사건관련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것과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급히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참여련대는 국방부의 최종적인 보고서공개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다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함선침몰사건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였다.

《경향신문》,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은 국방부의 최종보고서라는것은 지난 5월의 조사결과를 되풀이한데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언론들은 군당국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지만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4대강정비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민심을 기만하는 허황한 말장난

반인민적정치로 집권전반기 남조선사회에 류례없는 혼란과 파국을 몰아온 남조선집권세력이 최근 그 무슨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에 대해 적극 광고하고있다. 지난 8월의 개각놀음에서도 보수패당은 《비도덕성과 부자영상이 강한 장관들을 서민영상을 가진 사람들로 교체할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정한 사회》건설과 《집권후반기 안정적이며 효률적인 국정추진을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기만적인 놀음은 오히려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당국의 《친서민》, 《공정한 사회》간판이 정치적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상투적으로 써먹던 《영상바꾸기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소, 규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운운하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타령이 각계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이 궁여지책으로 그 무슨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에 대해 표방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인민적정체를 가리우고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한갖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고 남조선당국이 《친서민》, 《공정한 사회》간판을 내걸고 하는짓을 보면 근로인민들의 요구같은것이 애당초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외교통상부 장관자리에 틀고앉아 온갖 반역행위를 저지르던 류명환이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로된데 의하면 이자는 측근들을 내세워 외교통상부를 완전히 개인기업처럼 꾸렸을뿐아니라 장관직을 악용하여 자기 딸까지 비법적으로 채용하는 망동을 부렸다. 특권을 행사하며 자기 자식들을 행정기관들에 채용한 사실들은 류명환뿐이 아니라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서도 수두룩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권력을 쥐고 온갖 전횡과 부정부패행위를 다 저지르는 남조선집권층내부의 썩은 면모를 심각하게 부각시켜주었다.

지금 남조선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과 룬락, 자살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때에 류명환과 같은 권력을 쥔자들이 직권을 람용하며 제 리속채우기에 눈이 빨개 돌아치고있는 사실은 인민들의 응당한 분노를 자아냈다. 남조선 각계는 《장관의 딸만 특별채용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떠드는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에 대해 모르는것은 당국자자신》이라고 조소하였다.

일이 이쯤 되자 바빠난 청와대패거리들은 사건이 외교통상부내부에 국한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급기야 류명환을 장관자리에서 떼버리는것으로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려고 꾀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의 그 부패한 몰골이야 어찌 감출수 있겠는가.

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내세운 총리, 장관후보자들중 부정부패사건에 관여하지 않은자는 하나도 없다. 그 무슨 《서민출신》의 간판밑에 총리후보자로 되였던 김태호를 놓고보자. 이자는 지난 시기 권력을 휘두르며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 제 주머니를 채운것으로 하여 각계의 규탄을 받고 총리자리에 올라앉아보지도 못한채 물러났다. 그뿐이 아니다. 그의 뒤를 이어 김황식이라는 자가 총리후보자로 되였는데 그에게서도 지금 부정부패혐의가 오물처럼 쏟아져나와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있다. 지금 야당들은 김황식이 《총리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의 부정부패혐의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이 《장관후보자들의 부정부패경력을 보면 〈국정쇄신〉이나 소통, 친서민의 의지를 읽을수 없다. 한마디로 〈공정한 사회〉를 외면한 오만과 독선, 불통인사의 결정판이라고 할만 하다.》라고 개탄하였겠는가.

권력의 자리를 자기의 측근들로 채우고 친재벌정책을 펴고있는 남조선당국자가 《친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를 아무리 운운하여도 그것을 곧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당국자의 독단적인 반인민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사회의 갈등, 빈부격차는 지난 2년반보다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기만적인 《친서민》, 《공정한 사회》간판을 내걸고 집권후반기 권력안정을 실현해보려고 꾀하지만 그것은 실현될수 없다. 보수당국이 기만술책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반인민적정치의 쓴맛을 볼대로 본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반《정부》투쟁만 고조시킬뿐이다.

본사기자 박 철 준

최신예전투기순환배치가 시사하는 위험성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내외호전세력의 책동이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은 《F-22A 랩터》전투기가 남조선에 순환배치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공군의 최신예전투기인 《F-22A 랩터》의 순환배치는 그냥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꿈의 전투기》라고 하는 《F-22A 랩터》전투기는 항속거리와 작전반경, 능력을 놓고볼 때 매우 위험한 선제공격수단이다. 《리륙후 30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할수 있고 《1시간이내에 북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F-22A 랩터》전투기의 남조선순환배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위협으로 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은 《방어에서 중요한 핵심》이니 뭐니 하면서 《F-22A 랩터》전투기의 순환배치가 마치도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조치인듯이 변명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호전광들의 북침야망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F-22A 랩터》전투기의 남조선순환배치는 이 전투기를 《유사시》에 대비하여 조선반도의 지형과 북침작전환경에 익숙시키며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기 위한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더우기 위험한것은 《F-22A 랩터》전투기의 순환배치가 북침선제공격을 꾀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과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 조선동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남조선의 련합해상훈련에는 미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함께 《F-22A 랩터》전투기편대가 투입되였다. 《F-22A 랩터》전투기의 조선반도투입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모험적인 북침선제공격을 기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번에 미공군의 《F-22A 랩터》전투기가 남조선에 배치되게 되는것은 앞으로 있게 될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F-22A 랩터》전투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불장난소동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북침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군사적압력을 가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순환배치의 명목밑에 남조선에 머물러있게 되는 《F-22A 랩터》전투기가 우리 공화국을 기습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 미국은 《유사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일본과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에 배치되여있는 방대한 무력의 협동하에 기동타격전을 벌릴것을 획책하고있다. 《F-22A 랩터》전투기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유사시》이 전투기의 공격진입시간이 훨씬 단축되게 된다.

지난 9월 16일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에서는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미군부인물들은 《북의 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그에 대처한 남조선미국련합군의 《확고한 태세》가 갖추어지고있다고 떠들었다. 그 《확고한 태세》라는것이 《F-22A 랩터》전투기와 같은 최신공격수단들에 의거한 북침선제공격준비상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뢰호전광들도 남조선에 위험한 핵공격수단들을 끌어들이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에 열을 올리는 상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남조선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라는자는 얼마전 한 토론회에 나타나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전력확보》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군이 정밀타격능력을 갖추며 륙해공군과 해병대의 편제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고아대였다. 이날 이자는 《국방정책지침》도 《소극적방어전략》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적극적억제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비린청을 돋구었다. 지금 남조선군부는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을 쏟아부어 선제공격전략실현을 위한 최신전쟁장비들과 위험한 공격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수많이 끌어들이는 한편 자체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22A 랩터》가 남조선에 날아드는것을 과연 무심히 대할수 있겠는가.

지금 내외여론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완화되고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당치 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심히 해치고있다. 《F-22A 랩터》전투기의 남조선순환배치는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된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공격을 가하려고 날뛰고있지만 거기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공화국창건 62돐 경축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중국, 로씨야, 웰남, 라오스, 캄보쟈, 수리아, 몽골, 이란,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방글라데슈, 먄마,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스위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뽈스까,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 연회와 도서, 사진전시회, 친선모임, 영화감상회가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그 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놓여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백두산총대로 빛나는 조국》, 《유구한 력사로 빛나는 조선》, 《주체사상탑》, 《강성대국의 불보라》, 《평양의 밤》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웰남외무성 부상, 인민군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 인민회의 민족리사회 위원장,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부부장, 외무상조리, 웰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라오스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 보건상, 안전보위성 사무장, 국방성 부상,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교양위원회 위원장, 건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인민군후방총국장, 캄보쟈국왕개인고문단 단장, 왕궁담당 부수상, 국무상들, 문화예술상, 녀성사업상, 인민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외무 및 국제협조성 총서기와 국무비서, 문화예술성 국무비서,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 캄보쟈국회 의원들, 압싸라 TV 및 라지오방송국 총국장, 인민신문사 책임주필, 수리아보건상, 행정개발담당 국무상, 군대 및 무장력 부총참모장, 외무성 1부상, 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민족진보전선산하 정당 정치국위원들, 몽골 국방상, 식료, 농업 및 경공업상,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 몽골국가대회의 의원들, 대통령대외정책고문, 국방성 국무비서, 인민혁명당 비서,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 부상, 외무성 총국장들, 알 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네팔외무상, 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총비서,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외무성 부상과 전국말라이통일당, 중국인당, 인민운동당 지도부성원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담당 총국장대리, 녀성대회 총위원장과 대외관계위원장, 인디아외무성 동부비서, 동아시아국 련합비서, 공산당 (맑스주의) 지도부성원들, 대외정책연구소 소장,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방글라데슈공업상, 외무성 비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위원장, 인민련맹 위원장,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장, 먄마 양곤시 시장 겸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외무성, 련맹련대성발전당 인사들, 남아프리카국제관계 및 협조성 중앙 및 동아시아책임국장, 에티오피아외무성 아시아, 오세안주 및 중동총국장, 인민혁명민주전선 대외관계부장, 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들, 브라질검사부총장, 스위스외무성 국무부비서, 도이췰란드외무성 동아시아처장, 자유민주당 대외관계국장, 이딸리아국회 하원 자유인민당그루빠 부위원장, 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인민군동맹 위원장, 인도주의행동위원장, 기업가련맹 부총재, 철길회사 총사장, 뽈스까조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위원장, 우즈베끼스딴체육 및 문화상,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 등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책임자들, 해당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웰남외무성 부상은 웰남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을 맞는 조선정부와 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웰남인민은 조선인민이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캄보쟈국왕개인고문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을 금할수 없다.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나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분이시다.

우리는 주석께서 두 나라 친선을 위해 기울이신 로고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받들어 주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이란 알 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먄마 양곤시 시장 겸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마련되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선군령도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먄마인민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리라고 확신한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한다.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62년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력사이며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승리의 력사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물리치면서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와 그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본사기자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혁명적당

로동계급의 당이 력사무대에 등장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장구한 기간 수많은 진보적인 당들이 출현하였지만 조선로동당처럼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당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장장 65성상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로정을 수놓으며 자주시대 대중적당건설의 산모범을 창조한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 터치고있다.

지난 6월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에서는 뷸레찐 제41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인민의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완벽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대중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등 인민들의 숙원으로 남아있던 제반 민주개혁들을 수행하고 인민을 위한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일시에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조선이 사회주의기치를 드팀없이 고수한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책임감을 보여준 좋은 실례라고 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 비결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온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고 시종일관 그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여왔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이 로동당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본분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이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뷸레찐이 격찬한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견결히 옹호하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위대한 당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당의 불패성에 탄복한 체스꼬체히, 모라바, 실레지아로조협회 중앙위원회 집행비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으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한 당은 없다.》

범아프리카운동 정치 및 국제관계국장은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심으로써 당안에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다,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렇다. 뿌리깊은 나무가 모진 광풍에도 드놀지 않듯이 반석같은 대중적지반을 가지고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력사의 온갖 풍파를 과감히 헤치며 영원히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녀성 및 어린이건강 보호사업에서 성과

앙골라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17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산모사망률이 10만명당 1 000명으로부터 61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 5살미만 어린이사망률은 1 000명당 250명으로부터 161명으로 낮아졌다.

중 국 에 서 벼 탈 곡

수출 증대

— 먄마에서 2010—2011회계년도의 1.4분기에 수출액이 지난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대되였다. 20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 모잠비끄에서 올해 상반년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 증대되였다. 22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제재책동을 규탄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21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서방의 제재조치로 하여 짐바브웨에서 기아와 빈궁을 청산하기 위한 천년기개발목표 실현사업이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인권침해》를 구실로 자기 나라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짐바브웨정부의 노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21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발전과정이 지장을 받는 등 혹심한 피해가 초래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륙의 모든 나라들은 단결하여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수단정부는 나라의 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관광과 생물다양성》

19세기 40년대초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출현한 때로부터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관광업은 오늘날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오늘 세계관광기구 성원국들은 세계관광의 날을 맞이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는 1979년 에스빠냐에서 열린 이 기구 제3차총회에서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정하고 1980년부터 매해 기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마다 9월 27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이날에 즈음하여 매번 주제를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한다.

올해에는 《관광과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밑에 중국의 광동성에서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세계관광의 날 주제가 보여주는것처럼 관광과 생물다양성은 밀접한 련관속에 있다. 관광업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관광업의 가장 큰 재부의 하나인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려행하고있다.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식량과 옷, 목재, 의약품, 에네르기,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보장받을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매개 나라 경제의 지속적발전과 세계환경보호, 지구생태계의 련속성보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오늘 세계적인 범위에서 초래되고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자연생태계와 경제발전의 기초를 파괴하며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현 실태는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물다양성보호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관광업의 요구와 원칙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름난 명승지들이 많다. 묘향산과 금강산 등 우리 나라의 여러 명승지들은 세계일류급의 관광지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갖춤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줄 모르고있다.

관광사업은 국제적인 래왕과 교류, 호상협조와 리해, 친선을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된다.

최근 세계관광기구와 여러 나라들의 노력에 의해 관광업이 날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풍부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관광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늘은 세계관광의 날이다.

박 송 영

오늘의 세계

지역의 안정과 협조를 위한 움직임

지금 까자흐스딴에서 상해협조기구 반테로합동군사훈련 《평화사명—2010》이 진행되고있다.

지난 13일에 시작된 이 훈련에는 까자흐스딴과 로씨야, 중국 등 기구성원국의 많은 군인들과 300대이상의 군사기술기재 등이 동원되고있다고 한다.

까자흐스딴무력총참모장은 이번 훈련이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이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세계공동체에 보여줄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상해협조기구의 기동전략훈련 《싸라또브—반테로—2010》이 로씨야에서 진행되였다.

기구성원국들과 인디아, 몽골, 파키스탄의 안전 및 특수기관들의 참가밑에 벌어진 훈련에서는 가상적인 테로그루빠들을 수색하고 그 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작전이 련마되였다.

이것은 지역의 안정과 안전보장을 위해 성원국들사이의 련대와 협조를 강화하고있는 상해협조기구의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 여러 지역 인민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의 후과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살고있다.

《반테로전》의 주요전장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감행되는 테로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으며 불안과 공포속에서 고통을 겪고있다.

테로행위들은 해당 나라와 지역의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협조기구는 지역의 안정과 협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화하고있다.

상해협조기구 서기장은 현시기 기구활동의 우선적방향은 의심할바없이 국제안전문제가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상해협조기구는 테로와의 투쟁에서 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것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이를 위해 상해협조기구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련대를 강화하는데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성원국들사이의 신뢰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상해협조기구 활동의 기본목적이다. 지난 6월 우즈베끼스딴에서 열린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수뇌자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기구 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상해협조기구의 력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러나 이 기구는 다극화방향으로 나아가는 세계적흐름에 발맞추어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서로의 문화전통을 잘 알고 그를 통해 각국 인민들사이의 리해와 친선을 두터이 할 목적밑에 진행되는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문화상들의 정기적인 상봉,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조제도, 사법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무대인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최고재판소장회의, 기구내에서 초민족적인 화페를 새로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다방면적인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상해협조기구의 활동과 노력을 보여주는 몇가지 실례이다.

주목되는것은 상해협조기구가 기구내에서뿐아니라 기구성원국이 아닌 나라들과도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현재 상해협조기구에는 중국, 로씨야,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 우즈베끼스딴이 망라되여있다. 이외에 이란, 파키스탄, 인디아, 몽골이 이 기구의 옵써버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지난 4월부터 벨라루씨, 스리랑카가 이 기구의 대화동반자로 되고있다.

상해협조기구가 영향력있는 지역기구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상해협조기구는 이러한 나라들과의 협조에 힘을 넣고있다. 이미 기구가입절차에 관한 규정이 비준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옵써버인 몽골의 주최하에 열린 상해협조기구 실업가위원회연단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다.

외신들은 상해협조기구의 확대움직임과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는 내정간섭행위

최근 스리랑카에서 헌법수정안이 채택되였다. 대통령의 임기제한을 철페하고 그의 권한을 강화하는것이 헌법수정안의 골자이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미국이 중뿔나게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제나름대로 평가하며 쓸데없는 비난을 쏟아붓고있다. 미국무성은 스리랑카에서 대통령의 련임을 허용한 헌법수정안이 채택된것이 《민주주의원칙들을 손상시킨다.》느니 뭐니 하며 비방중상하였다. 지어 미국은 스리랑카정부에 《독립기구의 자률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훈시질까지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가 명백히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스리랑카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헌법개정은 철저히 자기 나라의 내부문제로서 미국은 그에 대해 평가할수 없다고 면박을 주었다. 이 나라 교육상은 미국은 스리랑카의 주권을 침해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하면서 내정간섭적인 미국의 처사를 배격하였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의 자주적권리이다.

해당 나라가 어떤 정치방식을 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발전을 이룩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거기에 간섭하여나서거나 지시하고 호령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패권주의현훈증에 사로잡힌 미국은 제 흥에 겨워 자신을 《세계지도자》로 떠올리며 다른 나라와 지역문제들에 코를 들이밀고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며 삿대질하고있다.

짐바브웨문제를 놓고보자. 얼마전 미집권자는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 지도자들을 초청해놓고 이야기판을 펼쳤다. 이런저런 객적은 소리를 한바탕 늘어놓던 그는 짐바브웨문제를 입에 올렸다. 그는 아프리카나라들이 짐바브웨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뉴대가 강화되기를 원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가베대통령의 통치권만 더 견고하게 만들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쥐여짜면 아프리카나라들이 짐바브웨의 무가베정권과 상대하지 말라는것이다. 세상만사를 저들의 사고관점과 가치관으로 재여보는데 습관된 미국의 집권자들만이 할수 있는 주제넘고 건방진 수작이다.

미국은 무가베대통령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어쩌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왜냐하면 무가베대통령이 토지개혁과 국유화 등 여러가지 진보적인 시책들을 실시하면서 반제자주를 지향해나가기때문이다.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무가베정부의 정책은 지배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적리익에 저촉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들고 짐바브웨에 제재를 실시하며 무가베정부의 정책들을 비방하는 등 내정간섭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미국은 짐바브웨의 반정부조직들을 후원하고 부추겨 이 나라에서 무질서와 사회정치적혼란을 조장하고 현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다.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 지도자들을 초청해놓은 마당에서 미집권자가 짐바브웨대통령을 지명공격한것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권수립에 장애로 되고있는 무가베정권을 고립시키고 제거하려는 술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단합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아프리카나라들사이에 반목과 불화의 씨를 뿌리고 대결을 조장격화시킴으로써 저들의 지배주의속심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문제는 미국의 그릇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일삼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지배주의책동으로 2007년말부터 1년반도 못되는 사이에 아프리카의 10여개 나라에서 정치적소요와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안정과 번영,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실생활을 통하여 이것을 깊이 체험한 아프리카나라들은 오늘 단합하고 협력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해 떨쳐나서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동맹의 두리에 뭉쳐 대륙의 통합과 일체화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특히 지역문제에 머리를 들이밀고 제 리속을 차리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간섭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고있다. 한때 미국이 그렇게 장담하였던 아프리카주둔 미군사령부가 아프리카나라들의 일치한 반대와 배척을 받고 끝내 유럽에 《동거》하지 않으면 안된것은 그것을 립증해주는 단적실례이다.

시대는 크게 변하였다. 어제날 제국주의자들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일삼아도 아무 일 없었던 낡은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현시대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지키며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시대이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밑에 있었던 발전도상나라들이 오늘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예멘정부는 미국이 예멘에 있는 《알 카에다》조직을 소탕한다는 구실밑에 이 나라에서 공습 등 군사작전을 강화할것이라고 공언한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체의 무력으로 테로분자들과 그 후원자들을 얼마든지 격파할수 있다, 예멘에서 테로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그 어떤 군사작전에도 미국이 개입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밝히였다.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는 이란과 수리아, 베네수엘라, 수단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퉁을 맞고있다.

자주화의 국제적흐름을 외면하고 지배주의야망에 사로잡혀 악랄하게 감행하는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는 세계 어디서나 배척당하기마련이다. 내정간섭의 수법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예속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으며 그것은 저들자신의 파멸을 촉진시킬뿐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이스라엘의 살인과 폭압만행을 규탄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 야씨르 아베드 라보가 22일 라지오방송연설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최근 꾸드스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에 마구 총질을 하여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데 대해 그는 그것을 중동평화과정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한 비렬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평화회담분위기를 깨뜨리고 긴장과 대결국면을 다시 조성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팔레스티나수감자위원회가 20일 수감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압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흐시에 있는 한 감옥에 특수부대를 들이밀어 폭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에게 부상을 입힌것과 관련하여 단체는 그것을 인권유린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락인하였다.

단체는 그러한 폭력행위를 당장 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며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01175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